

강북구의회 균형 잡힌 원 구성 되어야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7월 1일부터 6대 강북구의회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으로 7월 12일

~13일,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142회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이에 6대 강북구의회 원 구성에 임하는 민주노동당 구본승 구의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구의회, 민주적이고 투명한 구의회가 되도록 주민 편에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1. 6대 강북구의회 원 구성(의장/부의장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등) 과정은 당리당락에 치우쳐서는 안되며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책임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지방선거 결과, 강북구의회는 한나라당6명, 민주당6명, 민주노동당1명, 진보신당1명으로 총 14명의 구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와 의사를 대표하는 원 구성과 의정활동을 펼

치라는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다수 당 중심의 원 구성이 아니라 소수당을 배려하는 속에서 균형잡힌 원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2. 원 구성 과정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현재의 교황식 선출방식은 '후보등록제' '정견발표제'가 반영된 민주적 선출방식으로 조속히 바뀌어야 합니다.(참조1)

모임의 대표를 후보 등록을 받고 정견을 들은 후에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일반상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 방식은 후보등록도 받지 않고 정견 발표도 없이 진행되는 교황식 선출방식입니다. 그로 인해 출마의사가 있는 구의원들의 물밑 접촉과 '표 조직'만 있을 뿐 의장, 부의장 출마자가 누구인지, 정견은 어떠한지를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점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강북구의원 구본승은 의장, 부의장의 민주적 선출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습니다.

3. 6대 강북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은 주민들께 신뢰받는 투명한 강북구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 강북구의원 구본승은 '구의회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과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장, 부의장 선출의 제 1순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지난 5대 강북구의회 의원 중 2인이 의회 법인카드를 불법접대를 하였다고 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6대 강북구의회는 '구의회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신뢰받는 구의회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강북구의원 구본승은 의장, 부의장 출마 의사가 있는 의원들께 '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지출 기준 마련과 영수증을 포함한 사용 명세의 정기적 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며 그 결과를 주민들께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조례 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습니다.

6대 강북구의회가 주민들께 신뢰받는 속에서 원 구성되고 힘차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